

광주 아파트 분양가 3.3㎡당 평균 800만원대

사랑방부동산 조사... 2년새 90만원 비싸져

전용면적 66㎡ 분양가 2000만원 오른 셈

지난해 3.3㎡당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등 2014년 광주지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800만원 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하면 3.3㎡당 90만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6일 사랑방부동산(srbhome.co.kr)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건설사가 광주에 공급한 18개 아파트 9677가구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기준층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가 3.3㎡당 768만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는 3.3㎡당 7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단지만이 공급됐던 2013년과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은 금액이지만 2년 전보다는 90만 원이 비싼 것이다. 전용면적 66㎡ 아파트 분양가로 따지면 2년 전보다 2000만원가량 오른 셈.

지난해 옛 남구청 자리에 들어선 봉선동 제일 풍경재는 광주 최초로 3.3㎡당 1000만원을 넘었으며 기준층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 3.3㎡당 평균 1061

만 원에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3.3㎡당 800만~900만원대에 분양된 단지도 속출해 분양가 ‘상승행진’도 이어졌다.

제일풍경재보다 앞서 분양한 서구 상무광명메이루즈는 900만 원대의 분양가에 나왔다. 지난해 8월 일반분양을 진행한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3.3㎡당 분양가가 907만원으로 제일풍경재 다음으로 비쌌다. 이어 남구 힐스테이트백운이 864만원, 북구 교대금호어울림 851만원, 북구 운암동 신성포레일 848만원, 동구 학동 무등산아이파크 841만원 순이었다.

반면, 600만원 대에 분양된 단지도 3곳이나 있었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단지는 북구 중흥동 도나우타운이 662만원 이었다.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의 전용면적 59㎡형은 668만원, 북구 두암동 이스토리도 694만원에 분양됐다.

■ 2014년 광주지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분양가 (기준층 기준, 단위 : 만원)

지역	단지명	3.3㎡당 분양가	3.3㎡당 총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
동구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810	841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651	668
서구	상무광명메이루즈	861	907
	매월동 아델리움로제비앙	818	822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재	1012	1061
	힐스테이트 백운	829	864
	서동 영무에다움	798	831
	교대 금호어울림	851	851
	운암동 신성포레일	815	848
	일곡 엘리제 프라임	793	820
북구	각화동 휴먼파크서희스타힐스	761	789
	중흥 영무에다움	697	723
	두암동 이스토리	694	694
	양산지구 진아리채	691	717
	중흥동 도나우타운	640	662
	첨단지구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716	754
광산구	신창 대광로제비앙	711	745
	선운지구 이지더원	684	702
전체 평균		768	794

〈부동산 사랑방 제공〉

사랑방부동산 관계자는 “택지공급이 어려워진데다 주택 건설이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분양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어 올해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는 3.3㎡당 900만원 선을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코스피 1800선 급락

33.30포인트 하락 1882.45 ... 16개월만에 최저치

코스피가 유가 추가급락 등 악재에 휘말리며 16개월 만에 1800선까지 밀렸다. 4분기 기업실적 우려를 비롯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대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탓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날보다 33.30포인트(1.74%) 하락한 1882.45로 장을 마쳤다.

수급상황도 좋지 않았다. 개인이 2730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 336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738억원 매도 우위였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였다. 섬유·의복이 제일모직의 추가 하락에 발목이 잡히며 4% 넘게 밀렸고 화학, 운수장비, 기계, 제조업, 전기전자 등도 2%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줄줄이 내렸다. 시총 상위 15위권 내에서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2% 넘게 하락했고 삼성에스디에스와 현대모비스, 제일모직도 3~5%대 급락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닷새

만에 조정을 받았다. 6일 코스닥지수는 전 날보다 2.35포인트(0.42%) 내린 558.9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서 개인은 29억원, 기관은 296억원가량을 사들였으나 외국인은 323억원 정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종이목재가 5% 넘게 뛰었고 정보기기, 비금속, 섬유·의류, 코스닥신성장, 인터넷 등은 상승한 반면 오락문화, 귀금속, 음식료·담배, 출판·매체복제, 방송서비스, 통신방송서비스 등은 1~2%대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1월 넘게 급락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날보다 11.1원 내린 1098.8원에 거래됐다. 약세 기조를 이어가던 연화가 급락하면서 은행권 손절매도(롱스탑) 물량이 쏟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유가하락과 그리스 불안 등 대외 악재가 겹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상황에서 수출업체의 네고(달러매도) 물량과 역외 달러 매도 역시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가 유가 급락과 그리스발(發) 충격에 전 날보다 33.30포인트(1.74%) 떨어진 1882.45로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82.45 (-33.30) ▼ 금리 (국고채 3년) 2.08% (-0.04)

▼ 코스닥 558.90 (-2.35) ▼ 환율 (USD) 1098.80원 (-11.10)

기아차 광주공장 작년 53만8000대 생산

연 최대 생산기록 달성

쏘울 22만1213대 최다

지난해 62만대 증산 체제를 본격 가동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53만8000대를 생산해 공장이 문을 연 이래 최대 생산기록을 달성했다.

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53만8896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이는 2013년보다 12.3%(47만9880대)나 증가한 수치로, 연간 최대 생산기록을 세웠던 2011년의 48만8154대를 5만대 이상 뛰어넘었다. 차종별로 보면 수출 전라차종인 ‘쏘울’이 가장 많은 22만1213대가 생산됐으며 이어 ‘스포티지R’ 16만310대, ‘봉고트럭’ 10만5455대, ‘카렌스’ 4만8043대 순이었다.

지난달엔 월간 최대 생산 신기록도 세

웠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12월 5만5209대를 생산해, 같은해 7월 기록했던 5만3580대를 경신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연구동 대강당에서 2015년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공장은 시무식에서 2015년 한 해를 운영해 나갈 공장 운영방침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새해 운영방침으로는 ‘최고로·더 좋게·다 함께·희망으로’라는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김종웅 공장장은 “올해 광주공장의 비전은 ‘즐거운 상상의 시작, 광주공장에서’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를 타는 고객에게도 즐거움과 안전을 제공하자”고 당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차그룹 2018년까지 81조 투자

친환경차 기술 확보 등

전체 4분의 3 국내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8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6일 앞으로 4년간 공장 신·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IT인프라 확충 등 시설투자에 49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31조6000억원 등 총 80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20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액으로 이는 이전 최대 투자액이었던 2014년 14조9000억원보다 35% 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R&D 예산(18조9000억원)보다 1조

원 이상 많다. 이번 투자는 완성차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인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차 관련 핵심기술을 집중 확보함으로써 이 분야의 업계 리더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투자액의 4분의 3이 국내에 집중된다. 국내에 투입될 금액은 전체 투자 계획의 76%에 달하는 61조2000억원이다. 생산·판매체제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공장 신·증설 및 IT 강화 등 기반시설 투자, 보안투자 등 시설투자에 34조4000억원, 제품 및 기술개발 등 R&D에 26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중기청, 올 전통시장 2822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에 지난해(2085억원)보다 35% 증가한 총 2822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전 확충을 위한 시설 개선과 일회성 행사 지원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적 자생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구노력을 하는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특성 에 따라 골목형시장·문화관광형시장·글로벌명품시장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디자인·신상품개발·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광주에서는 오는 13일 KTX 광주역 무등산실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색션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완했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도 상당수 바뀌어 최신한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했습니다.

www.yonhapnews.co.kr

■ 국배판 · 상권 1천 244쪽 / 하권 1천 612쪽
■ 가격 : 18만원

국립 서울 (02)398-3590~3 경기 (031)238-2222 인천 (032)27-1236 대전 (042)521-9705 광주 (062)264-5777
부산 (043)226-5005 대구 (053)242-7652 울산 (052)281-0010 서울 (051)441-7400 대구 (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NEWS